



## 게르트 마이어 Gerd Meyer

### 독일의 사회적 성격—동서독 간의 성격장벽?

‘원래 하나였던 것이 드디어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자 빌리 브란트가 감격과 기대에 차서 한 말이다. 그러나 ‘독일인을 통일시키려는 자는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1993년 10월 《디 차이트Die Zeit》지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 들이었던 독일이 통일 이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은 정치·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특히 심리적으로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동서독 간에는 서로 판이하게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변화되거나 간단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을 전후로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수많은 비교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서독의 정신적 심층구조를 설명해야만 한다.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독일 통일 덕택에 동서독 양쪽 사회의 전형적인 성격구조, 특히 상이한 사회질서 및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격구조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기회가 주어졌다. 《성격장벽*Die Charaktermauer*》(1995)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연구서는 바로 이러한 시도의 결과인데, 이는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의 한 작업팀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것이며 필자도 이 작업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우리의 목표는 동서독 남녀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격지향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립적 사회체제 및 극히 상이한 작업조건과 생활조건 아래에서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동서독 국민들의 심리적 특성과 잠재력이, 흔히 말하는 독일의 ‘내적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다. 이 연구는 프롬의 분석적 사회심리학을 현재 상황에 유익하게 적용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며,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 성격장벽 – 통일 시기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학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에리히 프롬이 사회비판을 위해 개발한 정신분석적 성격 개념과 성격 유형학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과 해석을 통해서 통일 직후 동서독의 인성구조를 분석했다. 프롬의 분석적 사회심리학은 눈에 띄이는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식적으로 언급한 의견이나 가시적인 행동방식의 근저에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심층구조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롬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이 심층구조를 사

회적으로 특성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프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지배적이고도 전형적인 성격구조 또는 사회적 성격지향성을 통해 특성화된다. 또 이들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물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존재한다.)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기능을 요구하며, 구성원들은 이를 학습하고 수행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국가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회적 성격을 나타낸다. 프롬에 따르면 하나의 사회 유형에서는 대개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 성격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지배하며, 그러한 사회적 성격은 그 사회의 조직 형태를 기능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 만약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면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정신적 심층구조로서 우선은 유지되다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간다.

동서독 국민의 성격에 대한 질적·경험적 연구를 위해 동서독의 초등학교와 종합기술학교 저학년 담당 교사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적응과정은 초등학교 영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직업군은 이런 방향의 연구에 특히 적합했다. 이 연구는 1991~1992년에 개인별로 약 두 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공개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끝난 뒤 곧바로 인터뷰에서 나온 대답을 평가했다. 이때 평가자들은 대답의 내용·모순·합리화·감정적 부분 등에 주목하기보다, 그러한 대답들이 평가자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느낌과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한 정신분석적 평가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방법은 혁신적이었다. 우리의 평가방법은 인터뷰 대상자의 심층구조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나타나는 평가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중요한 인식도구로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프로ムの 방법을 넘어선다. 그러나 개별적 진단과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의 발언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서로 결합시키는 이러한 방대한 평가방법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수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의 연구는 일종의 ‘준비조사Pilot study’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층심리학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그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사회적으로 전형적인 성격지향성 – 개요

우리는 개별 인간의 성격지향성을 이들의 사회적 특징과 연관지어 조사했다. 물론 각각의 개인은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성적 존재이다. 여기에서는 특정 사회체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성의 심층구조를 그 집단적·직업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밝혀보고자 했다. 라이너 폰크는 이 연구에서 프로ם이 언급한 성격지향성(즉, 열정적 기본성향)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각각의 동기들, 그리고 성격 특성(즉, 기본성향에 상응하는 태도)을 상세히 기술했다.<sup>1)</sup> 위 연구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성격 유형에 대해 다음에 간략히 소개한다.

- 권위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은 사디스트적인 성향과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으로 나뉜다. 사디스트적인 성향은 타인과 스스로를 지배하려 한다.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약탈하고 갈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은 남에게 굴복하고 스스로를 부인하거나 희생하며,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 마케팅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대신 시장과 타인의 요구에 타협하며 스스로를 맞추려고 한다. 마케팅 지향적인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을 잘 팔고, 스스로를 시장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재화의 획득은 물물교환으로 인식한다.
- 경미한 나르시시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기본성향을 추구한다. 실제로 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위한 효용 수단이나 가치로 생각한다. 타인은 단지 고유한 나의 반영이나 보완일 뿐이다. 목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경향은 재화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타인 및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 생산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은 타인과 자연 및 자기 자신과 애정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인간적 고유능력을 통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려는 열정적 기본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의 영역에서 이러한 생산적 지향성은 이성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행동의 영역

1) Internationale Erich-Fromm-Gesellschaft, *Die Charaktermauer*, 1995, pp.17-73 및 235.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에서는 생산적인 노동으로 나타나며, 예술과 수공업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감정의 영역에서는 생산적 지향성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서 표현되는데, 그것은 타인 또는 모든 인간 및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체험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자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sup>2)</sup> 프롬은 생산적 지향성을 자신의 저서인 《정신분석과 윤리》 《사랑의 기술》, 그리고 저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성으로서 설득력 있게 기술했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에서 어떤 성격지향성이 지배적인가를 알아내고자 했는데, 이때 특히 양적인 고찰보다는 질적인 고찰에 무게를 두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상이한 성격지향성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권위적인 기본성향(지배 또는 복종)을 가지고 있어도 마케팅 지향성 및 나르시시적 지향성이 섞여 있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 및 집단의 성격구조에 있어서 '비생산적 부분과 생산적 부분이 혼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점은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생산적 성격지향성은 자아의 통합과 성장, 그리고 인간의 고유능력에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이에 반해 비생산적 성격지향성은 타인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율적 능력으로부터도 소외되는 특징이 있다.

프롬은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즉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적靜的이 아니라 동적이며 개방된 인성의 개념을 채택했다. 그는 사회적 조건 안에서, 또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는 별개로 각 개인이 지닌

2) E. Fromm, 1995a, GA IV, p.27.

좀더 바람직한 가능성들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생산적 부분과 긍정적인 심리적·사회문화적 잠재력, 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꽃'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했다. 생산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에너지·생동감·창조력 등을 발산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 동서독의 인성구조 – 경험적 조사 결과

인터뷰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남녀 교사들에게서 우리는 권위적이며 약간 나르시시적이고 마케팅 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사회적 성격들을 고루 발견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찰된 사회적 성격지향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동독의 한 여교사의 부권 중심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적 성격이 그녀의 교육관,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평가, 여가선용 방식 등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유형을 통해, 예를 들면 서독 대도시의 초등학교 여교사—자신의 마케팅 지향성에 따라 학생들과 잘 사귀고, 동료 교사나 상급자·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학적 이론과 문화적 소양을 겸비하고, 항상 적절한 태도를 취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진짜 삶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여교사—와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아보려 했다.

조사 결과 우선 사회적 성격지향성의 양적 분포를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동서독인의 인성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의 준비조사는 특정 사회집단을 표본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으로 하여 동서독의 각 체제별로 형성된(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성격 특징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양적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개괄하겠다. 인터뷰 대상 교사 30명(여자 24명, 남자 6명) 중에서 16명에게서는 권위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이 지배적 형태로 나타났다. 지배적 형태뿐만 아니라 2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권위적 성향까지도 포함시키면 동서독의 총 23명의 남녀 교사에게서 권위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성격지향성은 경미한 나르시시즘이었다. 5분의 1에 달하는 6명에게서 그러한 나르시시즘 성격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2차적 성격지향성까지 합친다면 9명이 추가되어 전체 인터뷰 대상자의 절반에게서 경미한 나르시시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마케팅적 성격으로서, 이는 4명에게서 지배적이었다. 이밖에도 2명에게서 비축하는 성향(소유하고 붙잡는, 즉 소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려는 것), 1명에게서 죽음애호증적 성향(살아 있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고, 타인과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생산적 성격지향성이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교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성격지향성을 동서독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15명의 동독 교사 중 12명에게서는 지배적인 ‘권위적 성격’을 발견했다.(나머지 3명은 비축적 성격, 나르시시즘 성격, 생산적 성격이 각각 1명씩이었다.) 반면에 15명의 서독 교사 중에서는 4명만이 지배적인 권위적 성격을 보였다. 동서독 비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동독인에게는 타인과의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적 성격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2차적으로 나타난 경우만 3명), 서독인에게는 4명이 마케팅적 성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나르시시즘 지향성은 서독에서는 5명, 동독에서는 1명씩 각각 나타났으며, 2차적 특성으로는 서독에서 4명, 동독에서 5명이 각각 나타났다. 마케팅 지향성과 나르시시즘 성격지향성을 종합해 볼 때, 동독과는 대조적으로 15명의 서독 교사 중에서 4명이 지배적으로 마케팅 지향적이었으며, 5명이 나르시시즘이었다.(그밖에도 4명이 권위적, 1명이 비축적, 1명이 죽음애호증적이었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동독에서는 여전히 권위적 지향성이 지배적이며(15명 중 12명), 서독인들은 주로 마케팅 지향적 또는 나르시시즘 지향적이라는 점(15명 중 9명)을 알 수 있었다.’

권위적 성격이 지배적인 동독 교사(12명)와 서독 교사(4명)를 서로 비교해 보면 권위의 성향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즉, 서독의 4명의 교사 중 3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조히스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동독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부권 중심적 권위주의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은 사디스트적 절제와 자기 감정의 부정이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가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다른 집단보다는 ‘경제적 적응의 압력’을 훨씬 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들은 아직은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생산적 성격지향성과 권위적 성격지향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인관계·책임감·사교성 등을 사회 평균 이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동독에서는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다소 떨어졌으며, 타인과의 피상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마케팅 성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권위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서독에서는 마케팅 지향적인 사람들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동독 교사 중에서 생산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남자 교사 1명뿐이었다. 하지만 생산적 성향은 2차적 지향성에서 더 비중 있게 나타난다. 이때 동서독 간에 두드러지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 즉, 유일하게 지배적인 생산적 성향이 동독에서 관찰되었다는 사실과 그밖에도 2차적인 생산적 성향까지 포함시켜 볼 때, 6대 3으로 이러한 성격지향성은 동독에서 두 배나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꽃’ (다시 말해서 변화와 성장의 욕구, 책임감, 관심과 대인관계 등)이 관찰되는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15명의 동독 교사에게서는 이 모든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독 교사 중에서는 3명이 이러한 꽃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강한 나르시시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성격구조에 생산적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6명의 동독 교사 중에서는 5명이 권위적이고, 1명이 나르시시적이었다는 점도 눈에 뜨인다.

### 해석 – 동서독의 사회체제와 사회적 성격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 동서독 초등교사의 성격지향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설명하고자 했다. 체제와 직업에 따른 특징을 알아내기 위하여 동서독 교사의 노동과 생활 상황을 분석했는데, 이런 상황에는 전체 사회적 구조와 각 개인의 성격지향성 사이에서 작용하

는 집단적 차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업을 갖기 이전, 그리고 직업 외 사회의 여러 상황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프롬은 특정한 성격지향성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성격, 그리고 이념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비교적 간단한 도식을 만든 바 있다.<sup>3)</sup>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롬의 이 도식을 더욱 세분화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수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프롬이 자본주의에 대해 가정했던—경제의 우위는 옛 동독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정치와 제도화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이 우위를 갖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사회 형태와 계획경제적 생산방식 체제 아래에서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권력 유지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옛 동독의 관료주의적이고도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와 통치 체제 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사회주의적 부권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부권주의에서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포괄적 감시체제와 사이비 복지국가적 후생복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sup>4)</sup> 이러한 지배형태는 무엇보다도 권위적 성격들을 필요로 했고 또 만들어 냈다. 교사는 사회주의 국가 지배체제의 한 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이런 지배체제가 학교를 통해 재생산되도록 도왔다. 옛 동독 학교체제의 제도화된 구조와 권력 위계질서는 법적 제도인 동시에 지독히도 권위적이었다. 또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수업지침은 아주 엄격했고, 공식적인 행동에 대한 감독망은 아주 치밀

3) R. Funk, 1978, pp.38-44.

4) 상세한 내용은 G. Meyer, 1977 및 1991 참조.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했다. 그리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이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권위적 성격지향성은 정치적·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미리부터 주어져 있었다.’ 외부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든, 아니면 이미 내면화되었든 말이다. 다수의 교사들은 최소한 외적으로라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행동했다. 그리하여 권위적 권력에 민감해지고, 종종 ‘내적 욕구’에 의해 권위적 행동방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동독은 체제 추종적인 사회적 성격이 영원히 계속해서 재생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서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내면적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생산적 특성을 띤 ‘부분적 반정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1989년부터 더욱 강화되어 공식적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깨지기 쉽고 점점 더 모순적으로 되어버린 사회적 성격은 사회의 ‘접합제’가 아니라 발효제로 작용했고, 마침내 사회구조의 내부적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독의 경우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치적 지배체제와 교육제도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성격의 형성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들을 결정지었다.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그에 따른 이념적 직업적 재생산 업무를 맡겼던 것이다. 이에 따라 타협주의적인 마케팅적·나르시시적·죽음애호증적 성격지향성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위적 성격지향성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한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고 프롬은 생각했다.

## 서 독

15명의 서독 초등교사들에게서는 ‘특히 세 가지의 비생산적 성격지향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권위적 성격(4명), 나르시시적 성격(5명), 마케팅적 성격(4명)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2차적으로 생산적 지향성을 지닌 교사를 3명 발견했다.

권위적 지향성의 형성은 전체 사회, 특히 기업이나 관청,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권위적 경향에서 기인된다. 더 나아가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과 권위에 대한 결속력이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는데 이러한 사실도 권위적 지향성 형성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료적이고 계급적인 학교 조직과, 교사 역할에 대한 특별한 요구(지도적이고 권위적일 것, 주어진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 규율·규칙·질서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별할 것,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등)도 권위적 지향성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아직도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그에 따라 보편적으로 초등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돌보는 데 있어 권위적이고 경미하게 나르시시적인 성격지향성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반드시 성격지향성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나르시시적 지향성은 대부분 약하게나마 배려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특히 교사의 나르시시적 성향은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잘 따르고 쉽게 이상화시켜서 생각한다. 때문에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아이들은 수시로 자신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고마워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사들의 나르시시적 자기애에는 전체 사회의 자기 중심적 경향과 개인주의적 자기연출의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자기애는 사적이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여가시간과 방학이—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풍족함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타협주의적 마케팅 지향성’은 우선 사회 전체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된다. 이 메커니즘의 특징으로는 자신의 고유상품인 노동력의 판매, 특히 경력을 쌓기 위한 자기 PR의 요구, 성공과 효율의 강조, 뛰어난 조직생활과 유연한 적응력을 들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몰개성화 및 노동과 인간의 일체감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소비, 여가, 직업적 성공 등에서 주로 작용한다. 초등교사의 경우에 마케팅 메커니즘은 직업과 관련해서는 단지 제한적이고 간접적으로만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에 대한 적응이 강하게 요구되던 1970년대 이후에는 특히 예비교사나 임시직 교사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기대, 특히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도 여기에 한몫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생산적 지향성 및 성격적 요소이다. 초등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상 민간경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생산적 지향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일과 성격을 경제적 효용에 맞출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교육제도가 자유로울수록 교사의 개인적·객관적 권위는—에리히 프롬의 말에 따르면—합리적이고도 생산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의 성장·자립성·성찰능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교사들에게서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 교육적 참여의식, 개인적 관심, 전문능력, 책임의식 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독에서 성격지향성의 보다 폭넓은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그 분포는 프롬과 우리가 가정하는 지배적 요소들(마케팅, 나르시시즘, 죽음애호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임의로 추출한 표본의 수가 적고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직업군 또는 집단의 특성적(그리고 개인적) 요인들 때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성장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요인 말이다. 권위적 성향을 지닌 사람의 수가 예기치 않게 많은 것은 아마도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권위적 성향을 갖도록 유도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서독의 사회화 과정과 가족제도, 그리고 많은 위계적 제도 안에는 프롬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권위주의가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 동 독

옛 동독 교사들과의 비교에서 우선 몇 가지 외관상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그에 대한 예로 남성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교적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반대로 90%에 해당하는 여성에게는 여가시간이 훨씬 적고 시간제 근무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 계획 이행에 대한 부담과 구조적으로 상호경쟁이 적은 상황 등도 이에 포함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부로부터, 또는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외부로부터'의 규정과 감독이 서독보다 훨씬 컸고,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선택권도 현저히 적었다. 삶의 양식과 실제에서 개인화의 기회나 소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었고, '삶의 내용'으로서의 금전과 소유 또는 소모적인 삶의 목표(자기 주택 소유, 해외여행)는 단지 하부적 의미만 지닐 뿐이었다.

1980년대의 동독에서 다수의 국민들과 초등교사는—매일매일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추종을 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내면적으로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정치적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 1989년이 될 때까지도 순응적 태도, 무기력,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이 지배적이었다. 옛 동독에서는 '공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랐으며, 이런 일들이 묘하게도 서로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성격지향성이 통일되어 있거나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는 또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부분적으로 역방향으로 진행된 결과이기도 했다. 동독 사회가 서독 사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동질적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성격지향성은 서독의 관점에서 언뜻 보기보다는 더 다양하고 다의적이며 모순적이었다.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주의 하에서의 엄격한 정치적 사회화와 적응의 압력 때문에 동독 교사들에게서 '권위적이고 부권 중심적 성격지향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앞서 우리는 권위적 성격지향성에는 마조히스트적 요소들(복종 및 가부장적 감독의 내면화)과 사디스트적 요소들(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정조절과 자기규제로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율을 통한 권력행사로써, 전체적으로는 강압적인 학교제도에 '함께 동조하기'로서 이해되는 사디스트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

한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된 권위적 지도(학급을 지배하고,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방적 교육 및 기존 질서의 재생산) 및 부모의 보살핌(부분적으로는 나르시시적 요소와 혼합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형태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습자와 학습자는 사회적 의무에 잠재된 자기억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기대했던 대로 동독의 사회적 성격에서 마케팅 지향성은 2차적 요소로만 나타났다.(3명) 성공을 추구하는 마케팅 지향성의 성향은 동독 특유의 형태로 권위적 지향성을 보완하고 있었다. 즉, 상부에 성공을 보고해야 하고,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선전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룩해야 하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감, 기만적이고도 연출된 집단적 자기표현 등이 그것인데, 사실 이러한 '성공담을 통한 마케팅'은 사회주의적 관료주의와 행정적 의사소통 방식의 구조적 특징이다. 이밖에도—특히 간부들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지금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가에 대한 감지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나르시시즘'의 의미로서의 '경미한 나르시시적 지향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지배적인 경우 1회, 2차적 경우 5회) 이에 반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나르시시즘은 폭넓게 퍼져 있었다. 서독에서는 주로 사회·문화·경제적 이유로 나르시시적 지향성이 나타나는 반면, 동독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여기에서는 학교와 정치)의 분리, 경직되어 가는 동독 사회주의로부터의 내면적 반항, 압박을 받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지 않고 더 자유롭고 진솔하게 살 수 있는 사적 영역에 대한 욕구 등은 다수의 동독 시민들을 민간중심의 나르시시즘으로 이끌었다. 사회주의적 부권 중심주의의 지배 기술은 이러한 지향성을 눈감아 주고 부분적으로는 조장하기조차 했다. 감시와 보호를 받는 국민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작은 세계 주위를 맴돌았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거창한 정치를 멀리했다. 사회적으로 나르시시즘으로 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작은 행복,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작은 가정이 삶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여기에서 ‘사회적 나르시시즘’<sup>6)</sup>이라는 프롬의 개념은 좀더 구체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제한된 자아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다른 집단과의 차별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 ‘온순한 나르시시즘’이다.

사회적 나르시시즘의 경향은 동독 특유의 집단적인 자아 설정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사람들은 동독이라는 카테고리에 스스로를 제한시켜야 했으며, 그로부터 최상의 것을 끌어내야 했다. 많은 동독 국민들이 서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자신의 힘으로 달성한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이들의 업적은 외부에 의해서 평가절하되었고, 동독 시절부터 내부에 지녀왔던 자의식은 상처받았으며, 옛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를 점차 ‘2등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많은 동독인들은 서독인의 이러한—나르시시즘적이기도 한—모욕에 대해 건방지다는 비판으로 맞섰고,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5) 상세한 내용은 G. Meyer, 1999a 참조.

6) E. Fromm, 1964, GA II, pp.207-218.

동독에서 그렇게 많은 생산적 지향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1명에게서 지배적 지향성으로, 그리고 다른 6명에게서는 2차적 지향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다수의 동독 교사들이 직업 안팎으로 ‘생산적인 사고·감정·행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적私的 영역에서는 동독에서도 역시 개인성과 창의성을 위한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상대적 궁핍과 정치적 압력이 역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별한 종류의 친밀함과, 또 부분적으로는 삶의 품격을 간혹(항상이 아님) 주목할 만큼 향상시키기도 했다. 이는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또한 단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협조와 연대 속에서, 그리고 생산 공동체의 단결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말하자면 지하에 모여앉아 상부에 맞서거나, 좁혀오는 감시의 눈길을 영리하게 피하거나, 때로는 시민적 용기를 발휘하여 인간과 정치적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용감한 저항과 참여 속에서 그러한 생산적 지향성의 특징들이 잘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 초등교사들에게는 외부의 규제들을 최소한 완화시키고 아이들이 좀더 진실되고 감성적이며 독립적이 되도록 이끌려는 교육적 윤리의식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1989년 이전에도 작긴 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인간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아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을 것이다. 동독 초등교사 중에서 권위적 지향성을 갖지 않은 3명 중 2명은 27세 미만이다. 이것은 곧 대다수의 예스(긍정)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재량권을 용감하게 사용하는 작은 노(부정)들도 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 오늘날의 사회적 성격 연구 – 문제 제기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독의 권위적 지배는 부정이나 후퇴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생산적 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일종의 관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많은 동독 국민들에게 ‘부분적인 반정체성’이 조용하게 형성되어 나갔다. 이들은 내면적으로 체제에 등을 돌렸고 아직은 불분명하게 정의된 새로운 것을 찾아나섰다. 이렇게 동독에서 ‘보편적 불만’과 다양한 생산적 지향성들이 형성되어 나간 것이 결국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위한 중요한 사회심리적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고유한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통일 이후의 대변혁을 생산적으로 소화해 내도록 도와주었다.<sup>7)</sup>

놀랍게도 우리는 서독 교사들에게서는 동독 교사들보다 생산적 지향성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독의 삶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생산적 지향성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부권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동독 체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독특한 생산적 성격지향성이 — 역설적이게도,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독 체제 특유의 생산적 지향성은 서방의 산업문화에서보다 그 정도가 컸다. 서방의 산업문화는 시장의 익명적 권위에 지배당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고유능력으로부터 소외되도록 했고, 생산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7) G. Meyer 1999a; 1999b.

위의 조사 결과는 동서독의 정치·사회적 맥락, 그리고 사회집단의 작업 및 삶의 조건에 따른 ‘체제 특유의 차이점’이 통일 이후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성격지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독에서는 권위적 지향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반면, 서독에서는 다원주의적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정신분석적 사회이론 및 성격유형학에 관한 프롬의 핵심 주장과 요점들은 우리의 준비조사에서 대부분 입증되었다. R. 폰크는 성격지향성과 성격 특성에 대한 프롬의 유형학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했으며, 필자는 민간 중심적인 사회적 나르시시즘의 개념을 보완했다.(이 개념은 동독에서뿐만 아니라 서독의 다른 사회적 징후에서도 관찰되었다.)

프롬은 인간의 사고방식, 감정 및 행위의 기저에 놓여 있는 심리적 역동성의 구조와 방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프롬은 주관적으로 수행되는 추상적 시스템 분석이나 가시적 행동에 대한 양적 관찰과 측정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는 행동양식·태도·사고방식 등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무의식적인 기본성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나 사고방식의 동기들은 일견 다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확고하고 지배적인 성격지향성에서 연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세심하고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프롬의 인식 목표는 특정한 상황이나 진행과정, 행위 결과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방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출발이 되는 토대일 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의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롬의 접근방식이 계속해서 현대성을 유지하는 이 유도 바로 이런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위 동기와 역동성은 정서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준비조사에서 집단평가를 통한 새로운 심층 심리학적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며, 특정한 심리적 기본성향이 인터뷰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sup>8)</sup>

물론 우리는 프롬의 분석적 사회심리학의 의미에서나, 동서독 차이점 규명을 위한 우리의 설명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상호연관성을 설득력 있고 상세하게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연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프롬적 접근방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1) 성격지향성의 형성과 사회적 파급 및 분포, (2) 성격지향성의 유형학이 지닌 문법, (3) 성격구조의 변화의 조건 등이었다.

(1) 프롬은 성격지향성을 사회적으로 특징지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의 일차적 관심은 여러 성격지향성의 방향과 역동성을 분석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격구조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파급되는가에 관해서는 거의 — 필자의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정한 사회적 성격지향성이 교육·노동·여가를

통해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형성될 때, 사회의 개별적 ‘행위 주체’ (사회 전체적·제도적·조직적·집단적·직업적·개별적)가 얼마만큼이나 그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가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 특정 내용이 갖고 있는 상대적 비중과 가치지향성, 그리고 특정 성격의 구체적 작용방식 등도 개별적 사회 ‘영역’(경제·정치·이데올로기 및 교육제도와 학교제도를 포함한 문화·직업 분야)에서 좀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프롬은 이론적으로 너무 무차별적이고 추상적인, 즉 한 사회 안에서 ‘생산방식’이나 ‘사회·경제적 구조’가 차지하는 우위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치와 문화, 사회화 과정, 노동의 내용 및 수단 등은 프롬의 사회 분석이나 미래적 구상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롬은 성격지향성의 파급 및 형성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화 기관(예를 들면 동류 집단·미디어·학교) 등과 관련해서 볼 때 오늘날 가정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작용하는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직업적·사회공간적 노동조건과 작업조건이,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관계 중 어떤 것이, 또 어떤 종류의 사회적 자유 재량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적 성격지향성의 형성과 전개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억제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프롬은 구체적 행위를 외적 상황에 대한 수동적 적응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기능 요구에 대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대처로 이해했다. 그러나 다원주의적이고 ‘열린’ 사회에서 하나의 성격지향성이 지배해야 하는 이유나, 또는 상이한 성격지향성의 특정한 분포와 혼합이 생기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

8) 방법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제 에리히 프롬 학회, 1995, pp.136-174 및 261-266; J. M. Böhm 및 C. Hoock, 1998, pp.53-64 참조.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또한 사회적 변화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교적 고정적인 성격지향성이 형성되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사실도 의문의 대상이 된다. ‘구조적인 무성격’이 마케팅 지향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2) 프롬의 이론과 방법은 정신분석적이면서도 사회 비판적인 면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프롬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사회개혁을 위한 잠재력 분석에서 행동과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비록 인간의 더욱 강력한 생산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2차적일지라도—프롬이 가정했던 것보다는 좀더 크지 않겠는가? 효과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동반한 대중적인 ‘민주적 행위’이다. 하지만 이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일차적인 생산적 성격지향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일반적인 정치·사회적 행동 표본과 그 심리적 토대를 알아내기 위해 행위 과정 및 상황 지향적 요소들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롬은 성격지향성의 ‘유형학’을 개발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개념 변화를 겪었으며, 아직도 여전히 적지 않은 모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sup>9)</sup>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구조나 시대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성격 유형을 선택하고 구분짓고 변화시키는 기준 또한 항상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도 부족하거나와 경험적 연구에 필요한 구체화 작업도 부족한 상황이다.

(3) 사회 및 그 사회 내에 지배적인 성격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조건과 과정에 관해서도 일련의 문제들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프롬은 한 사회의 경제구조와 사회 유형적 성격구조 간의 관계를

‘불안정한 균형’이라고 기술했다.<sup>10)</sup> 이 상태에서 사회적 성격은 접합체로서 사회구조를 유지해 준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은 특히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데, 이때 그 변화된 생산방식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성격지향성과는 모순된다.

이밖에도 프롬과 매코비<sup>11)</sup>는 적용되지 않은 성격 유형을 통한 역동적인 사회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구속의 사슬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산적이고 해방적인 성격 유형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되거나—동독의 경우처럼—정치개혁에 대한 압력과 그에 대한 행동 가능성이 커지면 이러한 성격 유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적응과정은 종종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성격변화의 능력과 의지는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을 위상차位相差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프롬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언급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현재 이보다 더 정밀한 이론적·경험적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동독을 예로 들어 사회심리적 변화 잠재력의 발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밖에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성년이 된 이후에 의도적인 사회적 성격의 변화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아직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다. 프롬은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한 사회의 의도적인 사회적 성격의 변화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해

9) J. M. Böhm 및 C. Hoock, 1998, pp.31-35.

10) E. Fromm, 1992e [1973], GA XI, pp.129-175.

11) 1970b, GA III, p.478 및 481.





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독일의 성격장벽? — 성격의 차이와 독일의 내적 통일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위한 사회심리적 전제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준비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명제를 만들어 보았다.

1. 독일의 통일 과정에 반영된 동서독인들의 심리적 심층구조는 명백히 서로 다르다. 하지만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동서독의 성격지향성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서로 맥락을 달리한 공통점’도 보여주었다. 서독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권위적이고 덜 생산적인 것 같았다. 그리고 옛 동독 시민들은 생산적 지향성이 완전히 억제될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권위적이고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동서독 모두 생산적 요소의 발달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았다. 심리적 분리와 통합은 통일 직후에 인간적 삶의 전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상반된 가치가 병존하는 형태로, 상호모순적이기조차 한 잠재력을 가지고 독일의 내적 통일에 작용했다.<sup>12)</sup> 따라서 내적 통일은 그 자체만으로 자족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통일의 ‘가치지향적 측면’이라 하겠다.

2.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대체로 무의식적인 성격지향성들은 대개 장기적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는 1989년 이후 동독의 외적인 삶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한 것처럼 그 변화가 극단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히—부분적으로는 옛 동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몇몇 성격 특성들이 긍정적이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혹 ‘서독의 가치’들이 고집스럽게 우월성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자신만의 고유한 구성요소로 여겨질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심리적인 내적 통일은—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신속한 ‘동화(同化)’가 아니라 이질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점차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양 사회는 각각 자신들의 방식으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소 불완전한 사회심리적 토대를 만들어 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방식의 심리적 접근을 피하고 싶다면 생산적 지향성들을 강화하고, 소유지향성 대신 존재지향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동서독인들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삶은 상이한 사회질서에 기인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는 사회심리적·정치적 거리의 발생 이유이다. 이는 또한 장벽 붕괴 이후에 대두된 ‘성격장벽’이라는 은유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고방식·감정 및 행위에 나타난 지향성의 차이점은 성격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굳어진 내적 통일의 심리적 장애물과 같은 성격장벽은 없다. 여기에서 내적 통일이란 의사소통, 점차적인 동화, 상호이해, 균형 잡힌 연대 등을 의미한다. 사회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1989년 이전의 동서독 간에 단지 장벽과 무인지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동서독의 사람들을 이어주던 방문객, 국경을 통한 왕래, 미디어를 통한 교류 등도 있었다. 1992년까지 지속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 그리고

1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G. Meyer, 1997 및 1999a; 1999b 참조.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그 이후의 발전 상황 등을 볼 때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동서독간의 성격장벽이 지속되리라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동서독인들의 심리구조와 상호교류의 과정 속에서 통합과 분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와 그를 통해 얻어진 전체적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 Gerd Meyer : 1942년 출생. 튀빙겐 대학 정치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중부 유럽 및 동유럽의 정치체제, 정치문화 및 정치심리학. 주요 저술로는 <성격장벽—동서독 사회적 성격의 정신분석에 관하여> (de. by Internationale Erich-Fromm-Gesellscha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cht 1995)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후기 공산주의 사회의 변혁과정에서 담긴 심리적 관점>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997, p.17-28) 등이 있고, 저서로는 《변화하는 중동부 유럽의 정치문화》(Tübingen: Francke Verlag 1993) 등이 있다.

## [ 참고 문헌 ]

- Internationale Erich-Fromm-Gesellschaft (Hg.), 1995: *Die Charaktermauer. Zur Psychoanalyse des Gesellschafts-Charakters in Ost- und Westdeutschlan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Einzelne Formulierungen dieses Aufsatzes stützen sich auf Beiträge von R. Funk und anderen in diesem Band.)
- Internationale Erich-Fromm-Gesellschaft, 1995: ‘Empirische Charakterforschung. Ergänzungen zur Publikation einer Pilotstudie der Internait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in: *Wissenschaft vom Menschen.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Münster: LIT Verlag, S. 7-47.
- Böhm, J. M., und Hooek, C., 1998: *Sozialisation und Persönlichkeit: Autoritarismus, Konformismus oder Emanzipation bei Studierenden aus Ost- und Westdeutschland*, Gießen: Focus-Verlag.
-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 Funk, R., 1978: *Mut zum Menschen*,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Häuser, I., 1996: *Gegenidentitäten. Zur Vorbereitung des politischen Umbruchs in der DDR. Lebensstile und politische Soziokultur in der DDR-Gesellschaft der achtziger Jahre*, Münster: LIT-Verlag.
- Meyer, G., 1977: *Bürokratischer Sozialismus. Eine Analyse des soujetischen Herrschaftssystems*, Stuttgart: Frommann Holzboog.
- 1991: *Die DDR-Machtelite in der Ära Honecker*, Tübingen: Francke.
- 1997: ‘Zwischen Haben und Sein. Psychische Aspekte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in postkommunistischen Gesellschafte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1997*, S. 17-28.
- 1999a: ‘Kleine Lebenswelten im Sozialismus-ein ambivalentes Erbe für die politische Kulturen in Ostmitteleuropa’, in: *Demokratie in*



*Ost und West*’ Festschrift für Klaus von Beyme, hg. von W. Merkel und A. Busch, Frankfurt am Main: Suhrkamp, S. 310-331.

–1999b: ‘Values, small life worlds and communitarian orientations: ambivalent legacies and democratic potentials in postcommunist political cultures’, in: *Communitarianism, Liberalism and the Quest for Democracy in Post-Communist Countries*, hg. von A. Koryuschkin und G. Meyer, St. Petersburg: St. Petersburg University Press (im Erscheinen).

Thaa, W., Häuser, I., Schenkel, M., und Meyer, G., 1992: *Gesellschaftliche Differenzierung und Legitimitätsverfall des DDR-Sozialismus. Das Ende des anderen Wegs in der Moderne*, Tübingen: Francke Verlag.

94 | “사회적 분열과 한국 사회의 정체성: 독일의 분열과 한국 사회의 정체성 (Korean),” in: R. Funk, H. Johach, and G. Meyer (Eds.), *Erich Fromm heute. Zur Aktualität seines Denkens* (Korean), Seoul Younglim Cardinal, Inc., 2003, pp. 65-94.